

전공별 고용 및 임금격차

- 본고는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¹⁾에서 파악된 신규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출현황과 초임급여를 살펴보았음.
 - 취업통계조사에서 파악된 졸업현황과 고용률, 전공별 임금수준을 경제활동인구조사²⁾(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비교하면서 임금격차를 살펴보고자 함.
 - 취업통계조사는 취업자, 진학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미취업자에 대한 상세 정보가 부족한 한계를 경찰조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
 - 반면, 경찰조사는 신규 대학 졸업자로 분석대상을 나눌 경우 표본의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나 신규 졸업자 전수를 조사하는 취업통계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
- 일반대학³⁾내 졸업자의 전공 분포는 지난 10여 년간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
 - 인문계열(언어문학, 인문과학)⁴⁾, 사회계열(경영경제, 사회과학) 및 교육계열 전공 졸업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공학계열 졸업생, 의약계열 졸업생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전문대학 외⁵⁾ 졸업자는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2011년 22.2만 명에서 2022년 17.3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일반대학에 비해 전공 분포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인문 및 사회계열 졸업자 비율은 10%p 이상 감소하였고, 의약계열 졸업자 비중은 10년 전과 비교해 1.5배 이상 증가하였음.

1) 2022년 취업통계조사는 2022년 2월, 2021년 8월 졸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조사기준일(2022년 12월 31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인 사업자 등 취업자와 진학자 정보 행정DB를 제공받아 2023년에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음. 초임급여의 경우 2022년 12월, 2023년 3월 건강보험에 신고된 급여 정보를 활용함.

2)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조사자에게 전공 분야와 대학 졸업연도를 물어보고 있으며, 8월 부가조사 원자료를 통해 대졸자 전공 분야별로 임금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년 기준 신규 졸업자는 2022년, 2021년 졸업자로 정의하였음.

3) 학부 단위의 일반대학을 의미함. 일반대학원은 제외.

4) 학과(전공)분류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을 따르고 있으며 중분류, 소분류별 전공분류는 <부표> 참고.

5) 학부 단위의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능대학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 1〉 전공 대계열별 대학(일반대학, 전문대학 외) 졸업자 추이

(단위: 명, %)

	2011		2016		2021		2022	
일반대학	293,913	(100.0)	334,649	(100.0)	325,431	(100.0)	336,102	(100.0)
〈인문계열〉	37,938	(12.9)	43,147	(12.9)	36,841	(11.3)	38,341	(11.4)
〈사회계열〉	86,758	(29.5)	98,180	(29.3)	89,202	(27.4)	92,070	(27.4)
〈교육계열〉	16,460	(5.6)	16,045	(4.8)	15,561	(4.8)	15,557	(4.6)
〈공학계열〉	69,846	(23.8)	78,655	(23.5)	85,571	(26.3)	88,996	(26.5)
〈자연계열〉	35,816	(12.2)	40,354	(12.1)	37,203	(11.4)	38,378	(11.4)
〈의약계열〉	14,698	(5.0)	22,084	(6.6)	26,062	(8.0)	26,816	(8.0)
〈예체능계열〉	32,397	(11.0)	36,184	(10.8)	34,991	(10.8)	35,944	(10.7)
전문대학 외	222,305	(100.0)	201,295	(100.0)	177,859	(100.0)	173,153	(100.0)
〈인문계열〉	8,984	(4.0)	6,376	(3.2)	4,258	(2.4)	3,866	(2.2)
〈사회계열〉	64,168	(28.9)	51,277	(25.5)	39,263	(22.1)	37,669	(21.8)
〈교육계열〉	15,087	(6.8)	14,189	(7.0)	13,353	(7.5)	12,575	(7.3)
〈공학계열〉	57,029	(25.7)	53,036	(26.3)	49,592	(27.9)	48,040	(27.7)
〈자연계열〉	15,825	(7.1)	14,650	(7.3)	13,106	(7.4)	12,792	(7.4)
〈의약계열〉	26,359	(11.9)	29,308	(14.6)	31,681	(17.8)	32,146	(18.6)
〈예체능계열〉	34,853	(15.7)	32,459	(16.1)	26,606	(15.0)	26,065	(15.1)

주: 2022년의 조사대상은 2022년 2월 및 2021년 8월 졸업자를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KOSIS.

○ 졸업자 중 다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⁶⁾한 자, 입대자, 취업 제외 인정자⁷⁾, 취업 불가능자⁸⁾ (이상 취업비대상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자 중 취업자⁹⁾로 인정되는 비율(취업률)은 학부 단위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외 졸업자를 모두 합쳐 2022년 기준 68.6%임.

- 전공별로 의약계열(82.5%), 공학계열(70.9%)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전공의 취업률은 평균 미만임.
- 취업률이 가장 낮은 전공 분야는 인문계열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률이 2020년 52.7%까지 감소하였다가 2022년 59.4%로 회복하고 있음.
- 예체능계열 전공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1년 55.0%에서 2022년 67.9%로 크게 증가했으나 교외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 비중이 낮고, 개인 창작활동, 1인 창업(사업)자, 프리랜서¹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6) 조사기준일 당시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7) 의료급여 수급자+입관 전 여자군인+종교 관련학과 졸업자+항공 전문교육기관+외교부 봉사단 참여자.
 8) 수형자+해외이민자+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9) 취업대상자는 취업자+기타(취업자, 취업비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미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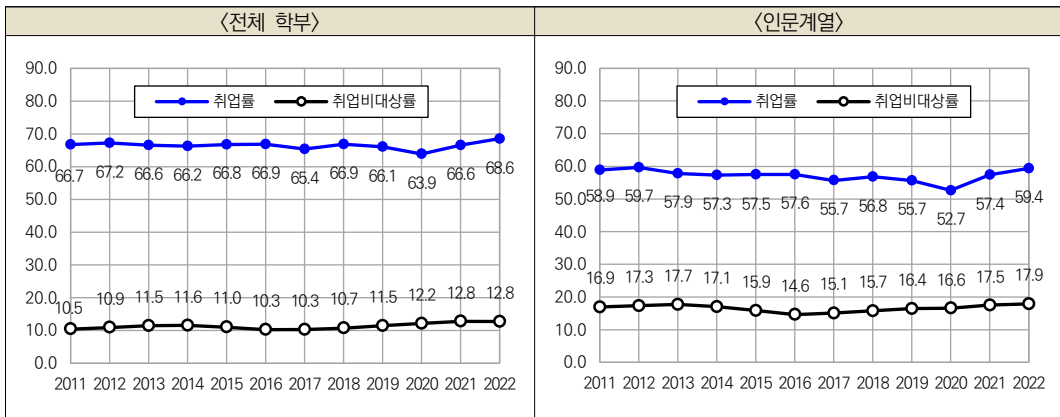
○ 취업비대상자 비율은 2011년 10.5%에서 2022년 12.8%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계열 전공 졸업자의 취업비대상자 비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표 2〉 2022년 대학(일반대학+전문대학 외) 졸업자 전공 대계열별 취업자 분포

	전 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졸업자	509,255	42,207	129,739	28,132	137,036	51,170	58,962	62,009
■ 취업비대상자	65,093	7,560	16,774	2,110	16,745	9,558	3,323	9,023
■ 취업대상자	444,162	34,647	112,965	26,022	120,291	41,612	55,639	52,986
● 기타 및 미상	139,673	14,073	39,426	9,878	34,977	14,591	9,743	16,985
● 취업자 (취업률)	304,489 (68.6)	20,574 (59.4)	73,539 (65.1)	16,144 (62.0)	85,314 (70.9)	27,021 (64.9)	45,896 (82.5)	36,001 (67.9)
- 교외취업자	266,774	16,827	64,356	14,467	79,149	23,343	44,330	24,302
- 교내취업자	5,019	686	1,599	276	821	586	281	770
- 해외취업자	1,505	293	496	9	324	182	63	138
- 농림어업	654	17	183	8	61	344	12	29
- 개인 창작활동	2,195	42	97	61	184	53	1	1,757
- 1인 창(사)업자	5,430	394	1,742	137	952	521	179	1,505
- 프리랜서	22,912	2,315	5,066	1,186	3,823	1,992	1,030	7,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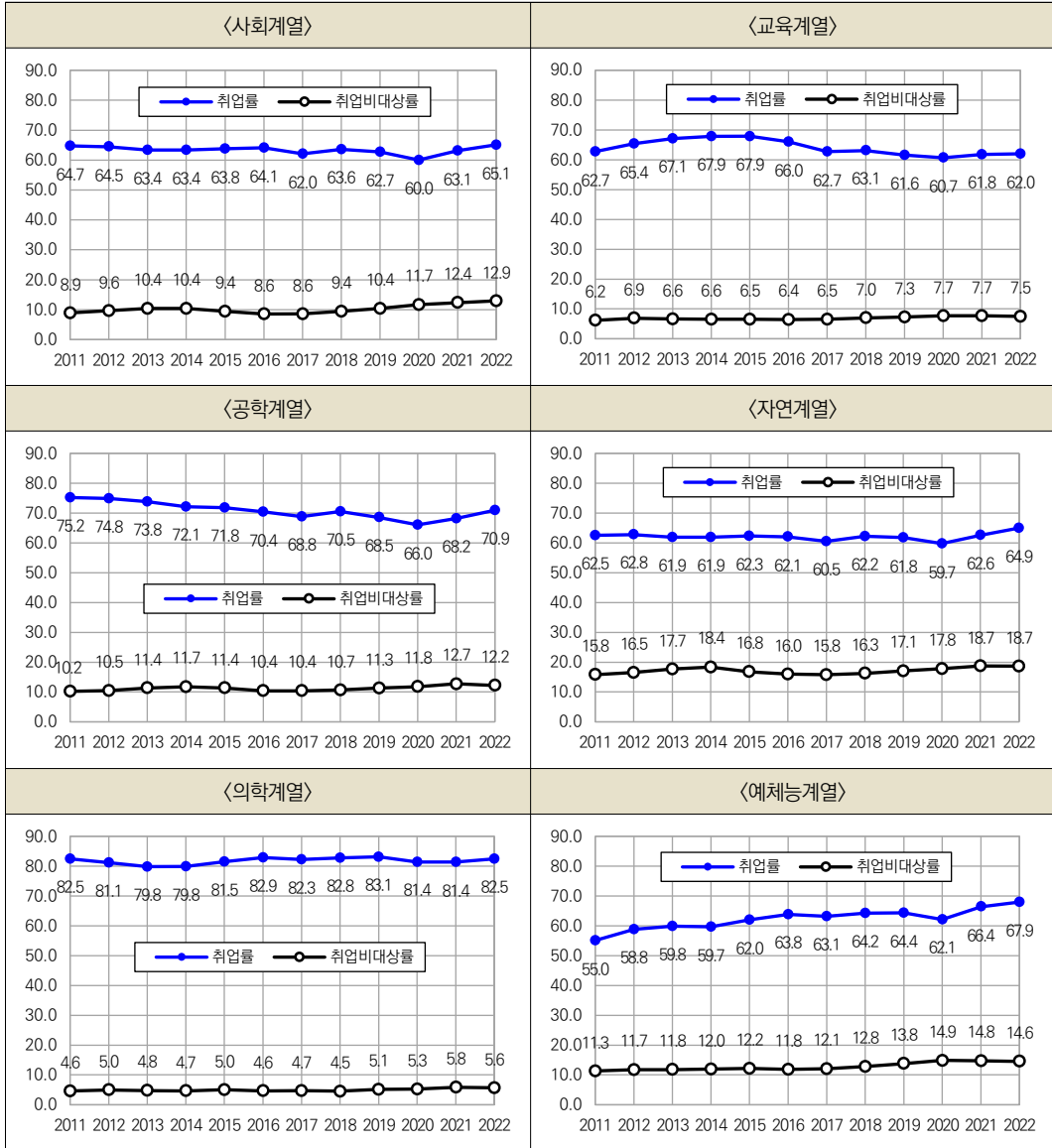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KOSIS.

〈그림 1〉 전공 대계열별 졸업자 취업률 및 취업비대상률 추이



- 10)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에서
- *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 개인 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 * 1인 창업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액이 685만 원 이상(2022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자.
 - * 프리랜서: 국세청 DB에서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575만 원 이상(2022년)으로 확인된 자.

[그림 1]의 계속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KOSIS.

○ 건강보험 직장가입과 상세 취업정보(기업명, 기업규모, 기업유형, 소득 등)가 모두 확인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초임급여를 살펴본 결과, 2022년 졸업자¹¹⁾ 전체 평균 임금은 월 272.3만 원 수준이며, 월 임금이 4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10.7%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11) 2022년 졸업자의 취업정보는 2023년 2~11월 공공기관 DB, 국세청 DB와 연계하여 취합하고 있음.

- 의약계열 전공 취업자의 소득은 월 303만 원, 월 400만 원 이상 비율은 13.4%, 공학계열은 각각 298만 원, 16.8%로 타 전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예체능계열로 월 임금수준은 222만 원이고, 400만 원 이상 임금 비율도 2.8%에 불과함.
- 다만, 전체 임금을 100으로 두었을 때 2018년 의약계열은 116.5, 예체능계열은 76.6 수준의 임금격차가 발생했으나 2022년에는 각각 111.3, 81.6으로 이전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었음.

〈표 3〉 대학(일반대학+전문대학 외) 졸업자 전공 대계열별 취업자 초임급여 추이

(단위: 만 원/월, %)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체	244.3	(4.8)	259.6	(6.0)	244.1	(6.0)	256.2	(7.9)	272.3	(10.7)
인문계열	215.9	(3.1)	229.7	(4.3)	226.9	(4.3)	236.0	(5.0)	250.4	(6.8)
사회계열	235.0	(5.0)	248.6	(6.4)	238.0	(6.1)	248.3	(7.4)	260.6	(8.9)
교육계열	211.9	(0.9)	226.7	(1.0)	218.1	(1.1)	224.5	(1.5)	233.0	(1.6)
공학계열	265.7	(6.5)	279.0	(7.4)	257.7	(7.3)	274.3	(10.3)	297.9	(16.8)
자연계열	232.8	(2.9)	245.8	(3.8)	229.5	(3.9)	237.0	(5.1)	254.4	(7.1)
의약계열	284.5	(6.6)	305.7	(9.4)	277.2	(9.3)	293.1	(12.8)	303.0	(13.4)
예체능계열	187.2	(1.5)	200.9	(1.7)	200.7	(1.8)	208.1	(1.9)	222.1	(2.8)

주: 2022년 기준 분석대상자 267,535명, 괄호 안 수치는 초임급여 월 400만 원 이상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이상 살펴본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결과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해 살펴본 결과, 2022년 연평균 졸업자¹²⁾의 고용률은 63.8% 수준으로 교육통계의 취업률(68.6%)보다 낮음.
 - 전공¹³⁾별로 살펴보면, 보건 분야 전공 졸업자의 고용률(78.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복지 분야, 공학 분야 순으로 고용률이 높게 나타남.
 - 사회과학 분야 졸업자의 고용률은 44.5% 수준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 인문학, 자연과학 순으로 고용률이 낮게 나타남.
 - 취업통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미취업자를 경찰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인문, 사회 계열의 낮은 취업률은 높은 실업률에 기인하고 있으며, 교육, 공학, 보건 계열은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음.

12)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2022년 15~29세 인구: 856.7만 명.
 그중, 전문대+대학교 졸업(중퇴, 수료, 재학 제외)한 인구: 281.7만 명.
 그중, 대학교 졸업연도가 조사연도와 같거나 1년 빠른 인구: 74.2만 명.
 13)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는 2018년까지 6개 대계열(인문사회, 예체능, 교육, 자연, 공학, 의약)로 전공을 분류하였으나 2019년부터 12개 교육 분야별로 학과를 분류하고 있음.

〈표 4〉 2022년 청년층 대학 전공 분야별 신규 졸업자 고용

(단위 : 천 명, %)

	졸업자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황
전 체	742	473	(63.8)	61	(11.5)	208
010. 교육	42	27	(63.4)	2	(6.0)	14
021. 예술	77	51	(65.3)	7	(12.0)	20
022. 인문학	67	38	(56.4)	8	(17.4)	21
030. 사회과학	34	15	(44.5)	5	(25.7)	14
040. 경영·행정	95	57	(59.9)	8	(12.3)	30
050. 자연과학·수학·통계	34	20	(58.4)	3	(13.9)	11
060. 정보통신기술	25	14	(55.2)	3	(16.5)	9
070. 공학·제조·건설	189	126	(66.6)	14	(9.7)	50
091. 보건	85	67	(78.1)	6	(7.6)	13
092. 복지	27	19	(68.6)	2	(9.6)	7
100. 서비스	62	39	(62.5)	5	(11.0)	19

주 : 1) 분석대상 = 15~29세 +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 2022년, 2021년 졸업자.

2) 분석대상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표본이 부족하여 통계적 신뢰도가 낮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농림어업, 수의학 분야 학과 신규 졸업생은 표본이 적어 분석에서 제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 원자료.

○ 한편, 2023년 신규 대졸자 월 평균 임금은 238만 원 수준이며,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을 넘어서는 비중도 7.5%로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나타난 임금수준(월 272.3만 원, 10.7%)보다 낮음.

- 전공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 보건 분야, 공학 분야 순으로 월평균 임금이 높은 편이며, 400만 원이 넘는 소득자의 비율도 각각 33.8%, 11.7%, 10.5%로 다른 전공에 비해 높음.
- 전체 임금을 100으로 두었을 때 2019년 예술 분야는 69.1,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134.5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발생했으나, 2023년에는 각각 84.2, 127.9 수준으로 취업통계와 마찬가지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표 5〉 청년층 대학 신규 졸업자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월, %)

	2019		2020		2021		2022		2023	
	임금	변동률	임금	변동률	임금	변동률	임금	변동률	임금	변동률
전 체	213.9	(4.4)	214.9	(3.4)	214.1	(3.6)	230.7	(3.8)	237.9	(7.5)
010. 교육	180.1	(0.0)	213.9	(2.8)	220.8	(0.0)	238.0	(0.0)	217.2	(0.0)
021. 예술	147.9	(0.0)	149.6	(0.0)	172.3	(0.0)	182.9	(0.0)	200.2	(5.0)
022. 인문학	224.5	(9.3)	191.2	(7.2)	205.4	(4.2)	205.2	(0.0)	221.4	(8.7)
030. 사회과학	211.8	(0.0)	211.7	(0.0)	195.7	(0.0)	156.6	(0.0)	233.9	(0.0)
040. 경영·행정	206.9	(3.1)	207.2	(7.1)	215.5	(6.6)	257.2	(11.1)	210.3	(2.9)
050. 자연과학·수학·통계	230.2	(5.6)	227.2	(0.0)	241.0	(8.0)	218.0	(0.0)	230.0	(1.0)
060. 정보통신기술	287.7	(24.4)	237.5	(10.2)	257.7	(9.4)	250.7	(13.2)	304.2	(33.8)
070. 공학·제조·건설	238.8	(6.2)	231.2	(0.8)	229.5	(6.7)	260.5	(7.6)	266.7	(10.5)
091. 보건	235.5	(3.9)	243.7	(5.7)	231.7	(1.1)	252.5	(1.9)	273.8	(11.7)
092. 복지	171.4	(0.0)	183.4	(2.7)	202.5	(0.0)	172.2	(0.0)	194.4	(0.0)
100. 서비스	216.3	(4.0)	183.2	(1.5)	177.8	(0.9)	206.1	(0.0)	214.3	(4.0)

주: 1) 괄호 안 수치는 초임급여 월 400만 원 이상 비율을 의미함.

2) 농림어업, 수의학 분야 학과 신규 졸업생은 표본이 적어 분석에서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원자료.

○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취업통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의 신규 졸업자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두 통계 자료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2년 취업통계조사 중위임금은 월 245만 원, 2023년 경할부가조사의 중위임금은 월 24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의약(보건)계열을 제외하고 전공별로도 비슷하게 나타남.

- 취업통계조사에서는 의약(보건)계열의 중위임금이 월 282만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할 부가조사에서는 공학계열의 중위임금이 280만 원으로 가장 높음. 중위임금이 가장 낮은 전공분야는 예체능 계열로 취업조사 및 경할조사 모두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임.
- 일반적으로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클수록 임금수준의 양극화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경할 부가조사의 전체 대학 신규 졸업자 전체 중위(240)-평균(238) 차이는 약 2만 원, 취업통계조사의 중위(245)-평균(272) 차이는 27만 원으로 표본조사인 경할조사보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취업통계조사의 소득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의약계열 전공자의 중위-평균 차이는 취업통계조사 약 21만 원, 경할부가조사에서 약 23만 원 수준으로 의약계열 전공자의 소득불균형이 경할조사에서 더 강조되고 있음.

〈표 6〉 청년층 대학 신규 졸업자의 중위 임금 비교(취업통계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단위 : 만 원/월)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2022~2023	
	취업조사	경향부가	취업조사	경향부가	취업조사	경향부가	취업조사	경향부가	취업조사	경향부가
전 체	208	200	221	200	217	210	230	225	245	240
인문계열	194	200	207	183	206	200	216	200	228	210
사회계열	198	200	210	200	210	200	220	200	231	210
교육계열	180	190	197	210	200	230	204	230	213	230
공학계열	233	230	243	230	233	230	250	255	271	260
자연계열	201	200	215	230	209	250	219	220	232	240
의약계열	240	220	264	230	259	230	275	230	282	250
예체능계열	173	170	185	180	190	185	200	207	208	201

주 : 1) 2019년 이후 개편된 12개 전공분야(100.서비스 제외)를 7개 전공 대분류에 매칭하여 비교하였음.

2) 2022년 취업통계조사의 임금은 2022년 12월, 2023년 3월 건강보험에 신고된 급여 기준이며, 경향부가조사는 2023년 8월 기준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원자료.

○ 월 평균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한 결과, 20대 대졸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5,164원 수준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전공 분야에 따른 임금격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 분야 대졸자의 시간당 임금은 20대 기준 18,018원으로 20대 전체 평균의 1.19배 수준이었으나 30대, 40~50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대임금 수준은 1.10배, 1.02배로 점차 감소함.
- 반대로, 초임이 평균 임금수준에 못 미치던 경영·행정 분야 전공 대졸자의 40~50대 기준 시간당 임금은 26,600원으로 전체 평균 대비 1.12배 높게 나타나면서 연령에 따른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사회과학 분야의 임금상승률도 높은 편에 속함.
- 인문학, 예술, 복지 분야 전공 대졸자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시간당 임금이 2만 원을 넘지 못할 정도로 연령대에 따라 임금이 적게 상승하고 있음.

○ 전공 내 임금격차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졸자의 상위 10% 임금수준(시급 34,540원)은 하위 10% 임금수준(시급 11,513원)의 3배 높게 나타나는데, 복지(2.37배) 및 보건(2.5배) 분야의 임금격차가 다른 전공에 비해서 적은 편에 속하고, 농림어업 분야(3.5배), 경영·행정 분야(3.35배)의 임금격차는 높은 편에 속함.

○ 성별 임금격차 상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임금은 여성에 비해 1.34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성의 전공 비율이 높은 편¹⁴⁾에 속하는 보건 분야, 교육 분야, 예술 분야의 임금격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오히려 여성의 전공 비율이 낮은 편¹⁵⁾에 속하는 정보통신기술, 농림어업 분야의 임금격차가 적은 편임.

〈표 7〉 2023년 전공 분야별 대학 졸업자 시간당 임금

(단위 : 원/시간)

	전체	20대	30대	40~50대	p10/p90	남성/여성
전체	20,839	15,164	19,658	23,697	3.00	1.34
010. 교육	19,575	14,702	18,286	21,574	3.04	1.34
021. 예술	17,317	13,680	17,832	19,095	3.05	1.25
022. 인문학	17,852	14,711	18,514	18,895	2.98	1.14
030. 사회과학	21,061	15,900	20,160	23,696	3.10	1.33
040. 경영·행정	22,614	14,683	20,275	26,600	3.35	1.41
050. 자연과학·수학·통계	22,190	15,240	20,363	25,124	3.25	1.28
060. 정보통신기술	22,581	18,018	21,565	24,169	2.89	1.13
070. 공학·제조·건설	23,167	16,448	21,421	26,025	3.26	1.30
080. 농림어업·수의학	20,479	13,158	20,260	22,067	3.50	1.01
091. 보건	20,092	15,951	18,920	24,493	2.50	1.36
092. 복지	16,005	13,376	15,789	17,336	2.37	1.20
100.서비스	16,566	13,424	17,064	18,878	2.62	1.29

주 : 시간당 임금(원) = 월 평균 임금(만 원)/(주당 소정근로시간*30.4/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원자료.

○ 2003년 이후 전공 계열별 시간당 임금의 상대적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임금격차가 인문·사회계열에서 나타났다면 현재는 자연, 공학계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인문·사회계열과 교육계열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예술·체육계열 임금은 전체의 75~80%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 평균 수준과 비슷했으나 최근 임금수준이 증가하고 있음.

14) 교육기본통계(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의 여자 재학생 비율은 아래와 같음.

2003년 교육계열 62.0%, 인문계열 57.7%, 예체능계열 53.6%, 의약계열 51.1%

2023년 교육계열 57.2%, 인문계열 58.6%, 예체능계열 53.3%, 의약계열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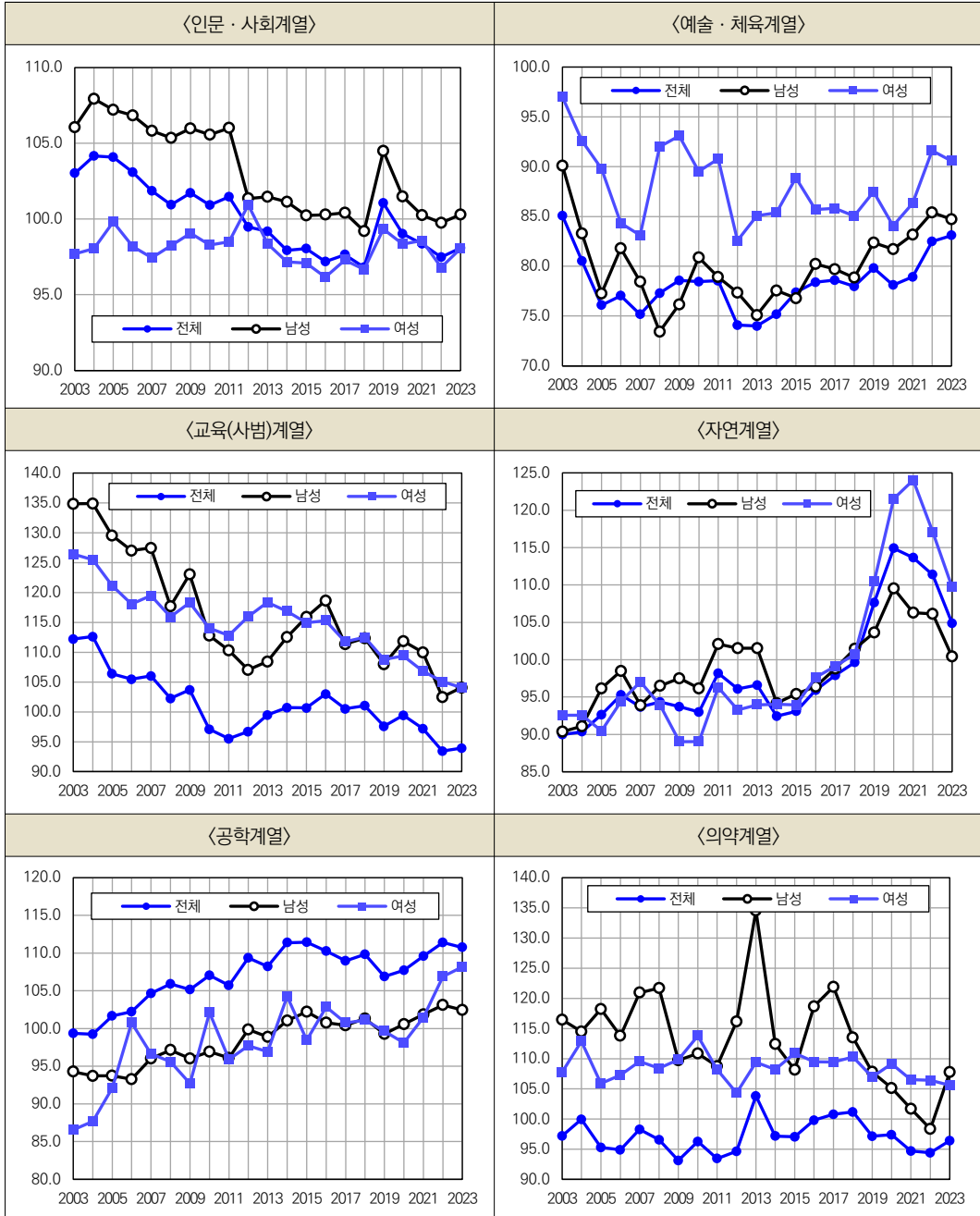
15) 교육기본통계(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의 여자 재학생 비율은 아래와 같음.

2003년 컴퓨터·통신(공학계열 내) 18.1%, 농림·수산(자연계열 내) 29.8%, 생물·화학·환경 34.8%

2023년 컴퓨터·통신(공학계열 내) 23.7%, 농림·수산(자연계열 내) 39.2%, 생물·화학·환경 45.8%.

[그림 2] 전공 분야별 대학 졸업자 시간당 임금수준 추이

(단위 : 전체 시간당 임금 = 100.0)



주 : 2019년 기준으로 달라진 전공학과 분류와 통합하였으며, 통합 기준은 <부표 2>에 정리. 2019년 이후에 새로 분류된 '100. 서비스' 분야는 제외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원자료.

〈부표 1〉 전공계열별 분류

인문계열 중분류 2 소분류 20	사회계열 중분류 3 소분류 16	교육계열 중분류 5 소분류 10	공학계열 중분류 11 소분류 28	자연계열 중분류 4 소분류 19	의약계열 중분류 4 소분류 8	예체능계열 중분류 6 소분류 20
[언어·문학]	[경영·경제]	[교육일반]	[건축]	[농림·수산]	[의료]	[디자인]
언어학	경영학	[유아교육]	건축공학	농업학	의학	디자인일반
국어국문학	경제학	[특수교육]	건축학	수산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일본어문학	관광학	[초등교육]	조경학	산림원예학	한의학	시각디자인
중국어문학	광고홍보학	[중등교육]	[토목·도시]	[생물·화학]	[간호학]	패션디자인
기타아시아	회계·세무	언어교육	토목공학	생명과학	[약학]	기타디자인
영미어문학	무역유통학	인문교육	도시공학	생물학	[치료·보건]	[응용예술]
독일어문학	교양경상학	사회교육	[교통·운송]	동물·수의학	보건학	공예
러시아어	[법학]	공학교육	지상교통	자원학	재활학	사진·만화
스페인어	[사회과학]	자연계교육	항공학	화학	의료공학	영상·예술
프랑스어	사회복지학	예체능교육	해양공학	환경학		[무용·체육]
기타유럽	국제학		[기계·금속]	[생활과학]		무용
교양어문학	도시지역학		기계공학	가정관리학		체육
[인문과학]	사회학		금속공학	식품영양학		[미술·조형]
문헌정보학	언론방송학		자동차공학	의류의상학		순수미술
미술사학	정치외교학		[전기·전자]	교양생활		응용미술
심리학	행정학		전기공학	[수학 외]		조형
역사고고학	교양사회		전자공학	수학		[연극·영화]
종교학			제어·계측	통계학		[음악]
국제지역학			[정밀에너지]	물리학		음악학
철학윤리학			광학·공학	천문기상학		국악
			에너지공학			
			[소재·재료]			
			반도체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컴퓨터통신]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주: 학과의 계열 구분은 「학과(전공)분류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에 따름.

<부표 2>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영역별 학과 분류

6개 계열(~2018년 조사)	12개 분야(2019년 조사~현재)
<p>1. 인문·사회계열</p> <p>1) 인문계열</p> <p>(1) 어문학 : 국문학과, 노문학과, 독문학과, 불문학과, 영문학과, 일문학과, 중문학과, 한문학과</p> <p>(2) 인문학 : 국사학과, 사학과, 신학과, 중국학과, 철학과</p> <p>2) 사회계열</p> <p>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관광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관계학과, 농업경제학과, 무역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아동학과, 정치외교학과, 지역개발학과, 행정학과</p>	<p>인문학 - 종교 및 신학, 역사 및 고고학, 철학 및 윤리학, 언어 습득, 문학 및 언어학</p> <p>경영, 행정 및 법학 - 회계 및 세무, 재무, 금융 및 보험, 경영, 행정, 마케팅 및 광고, 비서 및 사무, 무역 및 매매, 법</p> <p>복지 - 노인 및 성인 장애인 돌봄, 보육 및 아동·청소년 서비스, 사회복지 및 상담</p> <p>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 경제학, 정치학 및 시민학, 심리학, 사회학 및 문화연구, 언론 및 보도, 문헌정보학</p>
<p>2. 예술·체육계열</p> <p>1) 예술학 : 공예학과, 관현악과, 교회음악과, 국악과, 동양학과,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서양화과, 성악과, 음악과, 작곡과, 조소과, 피아노과, 회화과</p> <p>2) 체육학 : 무용학과, 사회체육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p>	<p>예술 - 시청각 기술 및 미디어 제작,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및 산업 디자인, 미술, 공예, 음악 및 공연예술</p>
<p>3. 교육(사범)계열</p> <p>가정교육과, 교육학과, 국민윤리교육과, 국어교육과, 미술교육과, 상업교육과, 수학교육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음악교육과, 지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컴퓨터교육과, 한문교육과</p>	<p>교육 - 교육학, 보육을 포함한 유아교육, 전공과목 없는 교사교육, 전공과목 있는 교사교육</p>
<p>4. 자연계열</p> <p>1) 이학 :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생물학과, 생화학과, 수학과, 유전공학과, 통계학과, 전산학과, 화학과</p> <p>2) 농림학 : 농생물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산림자원학과, 수의학과, 식품공학과, 원예학과, 조경학과, 축산학과</p> <p>3) 수산해양학 : 해양학과, 수산학과</p> <p>4) 가정학 : 가정관리학과, 가정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의상학과</p>	<p>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 생물학, 생화학, 환경 과학, 자연 환경 및 야생생물, 화학, 지구 과학, 물리학, 수학, 통계학</p> <p>농림어업 및 수의학 - 작물 및 축산, 원예, 임업, 어업, 수의학</p>
<p>5. 공학계열</p> <p>건축(공)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산업공학과, 섬유공학과, 자원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p>	<p>정보통신기술 - 컴퓨터 활용,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설계·운영,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분석</p> <p>공학, 제조 및 건설 - 화학공학 및 공정, 환경보호 기술, 전기 및 에너지, 전자 및 자동화, 기계 및 금속,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식품 가공, 섬유, 자원 채굴 및 추출, 건축 및 도시 설계, 건설 및 토목공학</p>

<부표 2>의 계속

6개 계열(~2018년 조사)	12개 분야(2019년 조사~현재)
6. 의약계열 1) 의학 : 간호학과, 의예(학)과, 치의예(학)과, 한의예(학)과, 건강관리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학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2) 약학 : 약학과, 제약학과, 한약학과	보건 - 치의학, 의학, 간호 및 조산, 의료진단 및 치료기술, 치료요법 및 재활, 약학, 한의학 및 대체 의학·치료 요법
	서비스 - 생활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숙박, 외식 및 조리 서비스, 스포츠, 여행, 관광 및 여가, 공중위생, 산업보건 및 안전, 군사 및 국방, 경호 및 경비, 운송 서비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임용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